



## 특집

### 조선시대 기장 도자기

-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 이종봉
- 임진왜란 직후 기장지역의 상황과 被虜人 沙器匠 / 변광석
- 기장지역 도자기의 제작기법과 도자사적 성격 / 성현주



##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이 중 봉\*

1. 머리말
2. 도자기 생산기반과 분포
  - 1) 생산기반
  - 2) 분포지역
3. 도자기 생산의 역사적 의미
  - 1) 분청사기의 생산
  - 2) 백자의 생산과 도공
  - 3) 도자기의 교역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기장지역 도자기의 생산과 의미를 검토하였는데,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장지역은 최근 활발한 시굴을 통해 삼국시대 토기를 생산 하였던 곳임이 밝혀졌다. 고려·조선시대에는 더욱 활발하게 도자기를 생산하였던 곳이었다. 이는 여러 곳에 분포하는 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장지역이 도자기를 활발하게 생산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목·시토 등과 무관하지 않고, 『경상도속찬지리지』 『장안리 자기소·도기소』의 기록과도 부합한다.

둘째, 기장지역은 ‘蔚山長興庫’·‘蔚山仁壽府’·‘蔚山仁’·‘耕負祭’ 명의 출토 명문을 통해 도자기 생산의 의미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

\*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leejb@pusan.ac.kr)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도자기 생산지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 기장지역은 공납용 분청사기를 생산하였고, 이러한 자기를 지역의 민간에 유통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기장지역의 조선시대 분묘 및 수혈지에서 분청사기가 출토되고 있는 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분원 설치 이후 기장지역은 일정기간 분청사기를 생산하였지만, 점차 백자를 중심으로 생산하였다.

셋째, 기장지역의 도자기는 조선시대 왜관을 통해 일본에 교역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진해 두동리 유적의 명문 분청사기가 인근의 제포왜관에서 교역되었다는 점에서, 기장지역에서는 비슷한 시기 분청사기를 생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염포·부산포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교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기장지역 도자기는 조선후기 왜관에서 기장 사기장의 파견 요청을 고려할 때 17세기 초량왜관을 통해 교역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왜관의 도자기 생산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주요어: 장안리, 울산장흥고, 명문, 자기소·도기소, 기장사기장

## 1. 머리말

도자기는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예술품이자 과학적 기술이 가미된 품목이다. 도자기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어 왔다. 특히 도자기가 생산되었던 곳으로 알려진 지역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였고, 이를 통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sup>1)</sup> 그리고 도자기와 관련된

1) 姜敬淑, 『粉靑沙器의 各 市·道 窯址別 特色』, 『粉靑沙器研究』, 一志社, 1986;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방병신, 『조선후기 백자연구』, 일지사, 2000; 姜敬淑, 『韓國陶磁史』, 일지사, 2001;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 출판부, 2003; 김영원, 『陶器所·磁器所 問題와 分院時期의 對日貿易-高興 雲岱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고려시대 청자를 생산하였던 강진에는 청자박물관을 통해 도자기를 지역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고, 조선시대 백자를 생산하였던 여주·이천 등은 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여 지역의 관광 상품화를 도모하였다.

기장지역은 인근 지역인 동래·양산·울산·연양 등의 지역과 달리 최근까지 도자기의 생산지로 알려진 곳이 아니었으므로 기장 지역에서 생산된 도자기에 대해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최근 기장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蔚山長興庫’·‘蔚山仁壽府’·‘蔚山仁’라는 관사명과 ‘耕負祭’란 명문을 가진 분청사기가 조사되었고,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도자기의 파편과 도지미, 그리고 벽체 등이 발견됨으로써 기장지역 도자기의 생산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장지역의 도요지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sup>3)</sup> 함께 『장안읍지』를 통해 도자기 출토지가 보고되었고,<sup>4)</sup> 그리고 도자기의 요지와 성격에 대한 조사보고서도 나왔다.<sup>5)</sup> 이러한 조사와 연구보고서는 기장지역의 도자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본고는 『기장 도자사 연구』 중의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역사적 성격」을 토대로<sup>6)</sup>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그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기장지역이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과 도자기 요지에

窯址를 中心으로, 『미술사논단』 2, 한국미술연구소, 2005; 강경숙, 『한국도요기 가마터 연구』, SIGONGART, 2006.

2) 강경숙, 위의 책, 1986, 327~330쪽, 401~402쪽; 威德大學校 博物館·蔚山大學校 博物館, 『蔚山「彦陽 磁器所」 地表調査 報告』, 2000; 김영원, 앞의 책, 2003, 385~389쪽.

3) 黃龜, 「기장의 분청사기와 매장문화재의 활용」, 『기장의 매장문화재 조사사례 발표회』, 기장지역문화원, 2006; 황구, 「기장의 분청사기와 매장문화재의 활용」, 『기장문화』 제5호, 기장지역문화원, 2007.

4) 長安邑誌編纂委員會, 『長安邑誌』, 2008.

5) 허선영, 「14~15세기 부산 기장지역 도자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機張郡·慶南文化財研究院, 『機張郡 陶藝村 造成을 위한 長安邑 一圓 陶窯址 精密地 表調査』, 2007; 기장군·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機張 陶磁史 研究』, 2008.

6) 이종봉,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역사적 성격」, 『機張 陶磁史 研究』, 기장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대한 분포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하지만 기장지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차례의 도자기와 관련한 보고서만 작성되었을 뿐 현재까지 요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도자기의 역사적인 성격을 검토하는 것은 부분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기장지역의 도자기는 고려시기에서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자기 요지의 지역적 분포가 상당히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주목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장지역 도자기 생산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경상도지역의 도자기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sup>7)</sup>

## 2. 도자기 생산기반과 분포

### 1) 생산기반

기장의 역사적인 첫 명칭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甲火良谷縣이었다. 기장에서는 동래에 존재하였던 瀆盧國 혹은 居柒山國처럼 소국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거도전에 의하면 신라가 탈해왕대(57~80) 때 거칠산국(동래)과 우시산국(울산)을 정복하였을 때 기장지역도 함께 정복되어 신라의 군현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갑화양곡현’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sup>8)</sup> 갑화양곡현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 기장현으로 개명되었고, 동래군의 속현으로

7) 경상도 지역의 도자기 요지에 대한 연구는 앞의 주 2)와 계명대학교, 『발굴 유물 특별전-김산군의 관와 객사 유적-』, 1998; 진해시·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진해 웅천 자기요지(1)』, 2001; 김윤희, 『경남지방 조선전기 백자 연구-하동 백련리 출토 백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윤희, 『사천 사촌리 요지 출토 백자 연구』 『경문논총』 창간호, 경남문화재연구소, 2007 등이 대표된다.

8) 鄭容淑, 「신라·고려시대의 지방제도의 정비와 機張」, 『한국민족문화』 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6; 이종봉, 「기장의 역사」, 『기장군지(상)』, 기장군지편찬위원회, 2002.

편제되었다.<sup>9)</sup>

기장현은 고려전기 양주·울주의 속현으로 존재하다가 12세기 이후 감무가 파견되면서 주현으로 승격되었고, 조선초기 이래도 계속 주현으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기장현은 조선초기부터 여러 차례 군현의 병합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결국 임란 후인 선조 32년(1599) 현이 동래에 통합되었다가 광해군 9년(1617) 현이 다시 부활되었다. 그런데 기장현이 선조 32년 동래에 통합되었을 때 동래에 전체가 통합된 것이 아니고 현의 동쪽지역은 울산에 통합되는 아픔을 겪었다. 울산에 통합된 지역들은 숙종 7년(1681)에 이르러 환원되었다. 이처럼 기장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현이 폐지되었다가 환원되는 소용돌이를 겪게 되었던 것은 현세가 약했기 때문이다.

이후 기장현은 갑오개혁 때 기장군으로 바뀌었고, 일제강점기 동래군에 통합됨으로써 독립적인 행정단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1973년에는 양산군에 통합되어 기장이란 명칭을 상실하였다. 기장군은 1995년 3월에 행정구역 개편 때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10)</sup>

기장군은 북서쪽으로 대운 산맥이 양산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고 동쪽으로 기장, 장안, 일광의 3개 읍면이 동해의 바다를 마주하고, 북동쪽으로 울주군과 접하고 있고, 남서쪽으로는 해운대구·금정구와 접하고 있고, 지형은 중·북부지역에 대운산맥을 축으로 불광산, 달음산, 수령산 등이 연이어 있고, 평야는 이들 사이사이를 흐르는 일광천·좌광천 등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다. 따라서 기장군은 산과 바다를 끼고 있다.

기장지역을 도자기 생산지로 인식하게 된 중요한 요인은 앞에서 언급한 대운산맥을 중심으로 형성된 산림과 양질의 도토,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풍부한 수원 등의 조건을 들 수 있다. 먼저 시목은 도

9) 위의 글, 2002.

10) 위의 글, 2002.

자기를 생산하기 위한 조건으로 아주 중요하다. 조선은 초기부터 병선의 건조를 위해 소나무를 관리하였다. 그런 점에서 다음의 자료는 주목된다.

<자료 가>

A) 議政府에서 兵曹의 청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兵船은 국가의 도둑을 막는 기구이므로 배를 짓는 소나무를 사사로 베지 못하도록 이미 일찍이 입법을 하였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가만히 서로 斫伐하여 혹은 사사 배를 짓고, 혹은 집 재목을 만들어 소나무가 거의 없어졌으니 실로 염려됩니다. 지금 沿海 주현의 여러 섬과 각 곳의 소나무가 잘되는 땅을 방문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는데, … 機張縣의 今昔末串·冷井山, 梁山郡의 大渚島 등 上項 주현의 도와 곳에 전부터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하는 것을 엄금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는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관원을 보내어 심게 하고서 옆 근처에 있는 수령 萬戶로 하여금 감독 관리하고 배양하여 용도가 있을 때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권121, 30년(1448) 8월 27일 경진)

B) 집의 이합 등이 아뢰기를, “ … 또 機張 땅에 배를 만들 목재를 수백 년 동안 오래도록 길러온 곳이 있는데, 경상좌수사 朴而昭이 같은 고향 친척의 부탁을 받고, 베어내는 것을 사사로이 허락해 주어 극도로 엉망이 되었으니 그가 너무나 법을 무시하고 사사로움을 따랐습니다. 잡아다 추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뇌물을 받은 군관과 나무를 베어낸 족속도 아울러 본도로 하여금 조사해 다스리게 하소서”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세 번째 아뢰니, 따랐다.(『현종실록』 권15, 9년(1668) 6월 8일 을해)

위의 <자료 가> A)에 의하면 전국의 여러 지역과 함께 機張縣의 今昔末串·冷井山은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으므로 이를 잘 관리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자료 가> B)는 집의 이합 등이 기장현에 배를 만들 수 있는 목재를 수백년 동안 길렀는데, 이를 유용한 경상좌수사 박이명을 탄핵한다는 것이다. 자료 B)의 배를 만들 목재로 기른 나무는 자료 A)를 고려할 때 소나무일 가능성이 많고, 수백년 동안

길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 A)의 세종대부터 길렀을 가능성이 많다. 배를 건조하는 소나무는 일정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기장지역의 수퓌末串·冷井山에 그런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나무들도 잘 자랐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이들은 도자기를 굽는 시목, 즉 빨감으로 아주 적합하였고 기장지역 도자기 생산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다음으로 백토는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아주 중요하다. 실제 도자기의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양질의 백토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다. 왜냐하면 백토는 바로 자기의 품질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분원 설치 이후 전국의 유명한 백토는 분원에 거의 독점되었다. 다음의 자료는 백토의 유출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자료 나>

工曹에서 아뢰기를, “白磁器는 進上과 이전에 燔造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公私間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사람은 工人까지도 制書有違律로써 科罪하도록 하고, 또 工物을 정하지 말고서 公事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제조하는 폐단을 방지하며, 무릇 白土가 산출되는 곳은 所在邑으로 하여금 盜用을 금하고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여 本曹와 承政院에 간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조실록』 권39, 12년(1466) 6월 7일 병오)

위의 <자료 나>는 공조에서 백토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공조와 승정원에 두고, 백토의 일반적인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백토는 15세기 중반부터 국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었고, 분원 설치 이후 그러한 경향은 더욱 철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분원이 설치된 이후 국가는 백토의 확보에 몰두하였고, 광주에서 채굴되었던 백토인 광주토, 양근에서 생산되었던 백토,<sup>11)</sup> 양구, 진주, 곤양, 경주, 선천 등 전국적으로 품질이 좋다는 백

토는 모두 분원으로 운반하였다.<sup>12)</sup> 그리고 조선후기 왜관에서 도자기의 생산을 위해 경주·진주·곤양·하동·김해 등의 백토를 요청하고 있다.<sup>13)</sup>

기장지역에서는 장안·대변·안평 등의 여러 장소에 지금도 백토가 널리 존재하고 있다. 이들 백토는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었지만, 기장에서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었다. 따라서 기장지역은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아울러 기장지역은 일찍부터 토기를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기장지역의 토기요지는 부산·울산 간의 고속도로(5공구) 건설지역에서 대형토기편과 가마 벽체를 확인하였다. 조사지역의 서쪽 하단부에서는 가마 1기가 확인되었으며, 가마와 연결한 동쪽에서는 폐기장지역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가마는 상부 대부분이 파괴되어 소성실의 바닥면만 잔존하고 있었다. 폐기장지역은 잔존 깊이가 얇고 범위가 넓지 않았는데, 후대의 교란과 경작 등으로 인해 원 위치에서 벗어나 다시 퇴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sup>14)</sup> 토기가마는 주변에서 수습된 토기편의 다수가 대형의 토기편인 점을 감안할 때, 대형토기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장지역은 산과 하천이 잘 어우러져 있고, 대운산맥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산은 쉽게 시목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토도 널리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장지역은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구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양근군 토산.

12) 김영원, 앞의 책, 2003, 122~125쪽.

13) 『왜인구청등록』 5책, 정묘(1687년) 7월 초2일.

14) 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부산·울산간 고속도로(제5공구)-』, 2005, 10쪽;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390~391쪽.

15) 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앞의 보고서, 15쪽.

## 2) 분포지역

기장지역은 근래 각 지역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와 산업단지의 조성은 기장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변모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는 토기와 도자기가 함께 출토되고 있어서 기장지역은 일찍부터 도자기의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관련하여 조선전기 지리지에 대한 문헌자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상도지리지』의 토산공물조에는 기장현 인근 군현에서 도자기와 관련한 기록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표 1> 『경상도지리지』의 기장현 인근 군현의 토산공물<sup>16)</sup>

지역	토산공물	비고
慶州府	磁器·陶器	
密陽都護府	磁器·陶器	
梁山郡	磁器	
蔚山郡	磁器·陶器	
淸道郡	陶器	
興海郡	沙器	
解顔縣	陶器	
慶山縣	磁器	
昌寧縣	磁器	
彦陽縣	沙器	
靈山縣	磁器	

위의 <표 1>에 의하면 기장현은 자기와 도기 생산에 관한 기록이 없지만, 인근 군현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토산공물로 자기와 도기가 분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장지역과 접해있는 군현인 울산지역에서 도기와 자기가 토산공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경상도지리지』 작성시기(세종 7, 1425년)의 기장현에서

16) 『경상도지리지』, 경주도.

도기와 자기가 생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울산군에는 자기와 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sup>17)</sup> 기장현 인근 군현의 도자기 생산 지역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sup>18)</sup>

<표 2> 『세종실록지리지』 기장현 인근 군현의 도·자기소<sup>19)</sup>

군현	도·자기소의 수	지역	성품
慶州府	자기소 2	서쪽 大谷村, 북쪽 勿伊村	하품
	도기소 2	동쪽 水吉谷村, 安康縣의 서쪽 草谷村	중품
密陽都護府	자기소 2	동쪽 烏山里·栗洞里	하품
	도기소 1	동쪽 丹場里	하품
梁山郡	자기소 1	남쪽 今昔山里	중품
蔚山郡	자기소 1	북쪽 齊餘沓里	하품
	도기소 1	북쪽 齊餘沓里	하품
淸道郡	도기소 1	북쪽 大谷里	하품
興海郡	자기소 1	북쪽 長生里	하품
大丘郡	도기소 2	解顔縣 東村 汝里, 壽城縣 南村 上院洞	하품
慶山縣	자기소 1	남쪽 豆也里 助造洞	하품
昌寧縣	자기소 1	남쪽 南谷里	하품
彦陽縣	자기소 1	남쪽 大吐里	하품
	도기소 1	남쪽 대토리	하품
靈山縣	자기소 1	동쪽 新峴里	하품

위의 <표 2>에 의하면 기장현에는 도기소와 자기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울산군에는 군의 북쪽인 ‘齊餘沓里의 자기소·도기소’에서 하품의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앞의 『경상도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 자료에 의하면 기장현의 인근에서

17) 『세종실록지리지』의 자기소의 기록은 1424년에서 1432년으로 보는 견해와 1454년의 기록으로 견해가 있다. 전자는 강경숙·김영원 등이 주장하고 있으며, 후자는 성현주가 주장하고 있다.  
 18)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경상도의 도자기 생산은 도기소 33곳, 자기소 37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19) 『세종실록지리지』, 경주도.  
 20) 울산군 제어담리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는 도자기를 여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었다. 특히 『경상도지리지』의 토산공물조와 『세종실록지리지』의 자·도기소는 기록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런데 조선전기의 기장현은 토산공물과 자·도기소의 기록에서 도기와 자기와 관련되는 기록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반하여 울산군에는 토산공물과 자·도기소의 기록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경상도지리지』 울산군 토산공물인 자기·도기는 ‘제여답리’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셋째, 『경상도속찬지리지(1469)』에는 기장현과 인근 군현의 도자기 생산지역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3> 『경상도속찬지리지』의 기장현 인근 군현의 도·자기소

지역	자·도기소의 수	지역	성품
慶州府	자기소 4	見谷里·勿伊里·大谷里·比伊里	중품
	도기소 3	安康縣 淨惠里, 杞溪縣 伐之洞里, 北安谷部曲 烏席里	하품
密陽都護府	자기소 1	동쪽 烏山里	하품
	도기소 1	동쪽 栗洞里	하품
大丘都護府	도기소 1	解顔縣 동쪽 汝乙里	하품
淸道郡	자기소 1	동쪽 北谷里	하품
	도기소 1	북쪽 大谷里	하품
興海郡	도기소 1	북쪽 勝谷里	하품
蔚山郡	자기소 1	남쪽 長安里 峴	하품
	도기소 1	남쪽 長安里 峴	하품
迎日縣	자기소 1	동쪽 沙峴	하품
	도기소 1	동쪽 沙峴	하품
東萊縣	자기소 1	북쪽 救也里	중품
	도기소 1	동쪽 史川里	중품
彦陽縣	자기소 2	내 瓮谷里, 남쪽 大吐里	중품
	도기소 2	내 瓮谷里, 남쪽 大吐里	하품
慶山縣	자기소 1	남쪽 豆也里	하품
	도기소 1	북쪽 栗亦村	하품

위의 <표 3>에 의하면 경주도 관내 기장현과 인근 군현의 자기소·도기소는 <표 2>와 비교할 때 새롭게 나타난 군현도 있지만, 사

라진 군현도 있고, 동일 군현 내에서도 도자기의 생산지역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도 기장현 도자기소는 나타나지 않고, 기장현 인근 군현의 도자기 생산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상도속찬지리지』의 동래현과 울산군의 사례이다. 다음의 자료를 검토하여 보자.

<자료 다>

- A) 陶器所 磁器所 皆在郡南長安里峴品下(蔚山郡)
- B) 陶器所在縣東史川里品中 磁器所在縣北救也里品中(東萊縣)

위의 <자료 다> A)의 울산군은 도기소·자기소가 군의 남쪽 장안리 고개에 위치하는데, 품질은 하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료-다』 B)의 동래현은 도기소·자기소가 현의 동쪽 사천리와 현의 북쪽 구야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품질은 중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동래현의 자기소와 도기소는 『세종실록지리지』 단계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15세기 중후반에 새롭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반면 기장 인근 군현인 양산군은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 각각 자기와 자기소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경상도속찬지리지』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울산군의 자기소와 도기소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군의 북쪽인 제여담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경상도속찬지리지』에 군의 남쪽인 장안리 고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군의 도기·자기는 『동국여지승람』의 토산조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15세기 말기에 생산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따라서 울산군의 도기소와 자기소는 15세기 전반기와 후반, 말기 사이에 생산의 변화와 함께 생산지가 이동되었다. 다만 도기소와 자기소가 제여담리에서 장안리로 이동하게 된 이유를 알 수

21) 『동국여지승람』 토산조에 경상도 지역 중에서 磁器는 동래·성주·의흥·고령, 沙器는 군위, 陶器는 동래만이 기록되어 있다.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기장지역은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들인 백토, 시목 등을 잘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경상도지리지』 울산군 부곡조에는 ‘부곡이 하나 있는데, 甲火이다’라는 기록이 있다.<sup>22)</sup> 갑화부곡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지만,<sup>23)</sup> 기장현의 원래 이름이 ‘甲火良谷縣’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기장지역과 관련을 가진다고 하겠다. 갑화부곡은 기장지역과 가까운 현재의 장안읍 일원으로, 고려말 자연촌의 성장에 따라 ‘長安里’로 승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울산군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장안리에 자기소·도기소를 이동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국가가 자기소와 도기소를 파악한 것은 공물로서의 도자기 제작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sup>24)</sup> 『경상도속찬지리지』에 기록된 울산군의 장안리는 현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일원이다. 그것은 현재의 ‘長安里’와 『경상도속찬지리지』에 기록된 ‘長安里’와 한자가 동일하고, 조선후기 『기장읍지』에 의하면 기장현 하미면 ‘長安坊’이었던 점을 통해 알 수 있다.<sup>25)</sup>

다음으로 기장군 장안읍 일대는 토기와 도자기의 요지가 널리 존재하였음이 여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sup>26)</sup> 토기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안읍 장안리 8번지의 15,295㎡에서 요지와 함께 많은 토기편이 출토되었다.<sup>27)</sup> 도자기는 장안읍 일대를 중심으로 청자(분청)·백자·옹기 등의 요지에서 명문의 자기뿐만 아니라 도기편을 수습하였다.

청자 및 분청사기 요지는 장안읍 오리 신리마을, 오리 대룡마을,

22) 갑화부곡은 조선초기 지리지인 『경상도지리지』·『경상도속찬지리지』·『동국여지승람』 등의 기장현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23) 구산우, 『고려의 건국과 울산』, 『울산광역시사(역사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24) 김영원, 앞의 책, 59~60쪽.

25) 이종봉, 앞의 책, 245~246쪽.

26) 黃龜, 앞의 글, 2006; 機張郡·慶南文化財研究院, 앞의 책; 長安邑誌編纂委員會, 앞의 책.

27) 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앞의 보고서.

장안리 상장안요지, 장안리 하장안요지, 기장읍 청강리 무곡요지 등이다. 신리요지는 가마가 1~2개 있었을 것으로 유추되고 있는데,<sup>28)</sup> 개간과 민묘 조성 등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곳의 도편은 고려말기에서 조선전·중기의 것으로 청자·분청·백자 등인데,<sup>29)</sup> 필자가 3차례나 현지를 조사하였을 때 파편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다. 신리요지에서는 청자와 분청사기 등을 주로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룡요지는 발굴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마를 확인할 수 없지만,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논과 구릉 쪽에 가마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도편은 도로 바로 위의 산쪽과 도로 옆의 논 뚝의 주위에서 다량의 무문 분청사기 편을 수습할 있었다. 대룡요지는 시기적으로 신리요지보다는 늦게 존재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sup>30)</sup> 이곳은 도로의 위쪽을 중심으로 요지 발굴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상장안요지는 도편의 분포가 상당히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요지가 많았거나 아니면 요지가 오랫동안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공적인 훼손이 많았던 곳이므로 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발굴을 통해 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蔚山長興庫’·‘耕負祭’ 등의 명문이 새겨진 분청사기가 수습되었으므로 『경상도속찬지리지』 장안리의 자기소와 관련을 가지는 요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장안요지는 도편의 분포가 일명 ‘사그집골’을 중심으로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산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마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곳인데, 이곳에서도 ‘蔚山仁壽府’·‘蔚山仁’ 등의 명문을 가진 분청사기가 최근 조사되었다고 알려졌다.<sup>31)</sup> 하장안요지는 도자기의 유형이 상장안과 비슷하므

28) 부산광역시 기장군·북천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기장군-』, 2005.

29) 機張郡·慶南文化財研究院, 앞의 책, 40쪽.

30) 위의 책, 46쪽.

31) 기장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앞의 보고서, 134~135쪽.

로 『경상도속찬지리지』 장안리의 자기소와 관련을 가지는 요지였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하장안요지도 기장지역의 도자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청강리 무곡요지는 이전 기장문화원과 부산박물관에서 지점을 확인하였지만, 유구는 파괴되었다.<sup>32)</sup> 도편은 청자와 분청사기 편이 함께 수습되었다고 하는데, 청자편의 경우 무문으로 12세기 무렵으로 상정하고 있고, 분청사기편은 15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무곡요지는 고려중기 혹은 조선초기에 존재하였던 요지임을 알 수 있다.<sup>33)</sup>

백자요지는 용소리·두명리·병산리 등에 위치한다. 두명리의 백자요지는 용천산의 구릉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곳을 ‘사그지미’ 즉 사기점이라고 부르고 있다. 도편은 발·잔·접시 등으로 완형에 가까운 것들이 많은데, 일정 장소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백자의 형태를 통해 유추한다면 요지는 조선 중후기에 지방의 수요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sup>34)</sup> 이 지역은 흑유자기와 다른 자기들도 산견되고 있으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병산리 백자요지는 정관신도시 쪽에서 상당히 안쪽인 함박산 북쪽 골짜기인 사그짐골에 유적이 위치하는데, 도편은 무문백자가 중심이다. 백자는 회색, 회녹색 그리고 녹색의 계열이고, 일부 철회백자도 나타나고 있다. 요지는 조선후기의 가마로 유추되는데,<sup>35)</sup> 두명리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병산리 백자요지는 병산리와 함께 다음 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왜인구청등록』의 기장 자기장의 요청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유추된다.

용소리의 백자요지는 지역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계곡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도편과 도지미, 벽체 등을 쉽

32) 機張郡·慶南文化財研究院, 앞의 책, 24쪽.

33) 위의 책, 24쪽.

34) 위의 책, 74쪽.

35) 위의 책, 24쪽.

게 찾을 수 있다. 백자는 주로 무문으로 조선후기 지방의 수요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1998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2개 이상 가마의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지만,<sup>36)</sup> 현재까지 드러난 가마는 확인되지 않는다. 백자와 여러 구전하는 바를 종합하면 이곳은 기장지역에서 실제 늦은 시기까지 가마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옹기요지는 기룡리 고래마을, 오리 판곡마을 등에 위치하고 있다. 기룡리 옹기요지는 기룡마을 입구에서 산 골짜기를 따라 가면 밭, 뒷산 구릉부 일대에 많은 양의 옹기편과 벽체 등이 분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sup>37)</sup> 이 지역을 중심으로 요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옹기편은 여러 종류가 산견되고 있고, 색깔도 다양하다. 아마도 요지는 조선전기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경상도 속찬지리지』 장안리 도기소와 일정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다음은 명례리 화철령 고개의 대명옹기 요지이다. 이 지역은 근래 조사된 옹기 요지로 기장지역의 옹기 생산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도편을 고려할 때 조선전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요지일 가능성이 많다. 이곳은 발굴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하는 지역이다.

오리 판곡 옹기요지는 판곡마을에 위치하는데, 논과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을 중심으로 옹기편과 벽체 등이 다량으로 채집되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요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많다.<sup>38)</sup> 옹기편은 다양한 기종이 산견되고 있는데, 아마도 존재하였던 시기는 조선후기일 것으로 유추된다.

그 외 기장지역, 특히 장안은 최근 활발한 발굴·시굴조사로 여러

3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박물관,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8, 102~103쪽.

37) 機張郡·慶南文化財研究院, 앞의 책, 80쪽.

38) 위의 책, 86쪽.

건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러한 자료들에 의하면 무덤에서 토기·자기편 등이 출토된 사례가 많다. 장안읍 반룡리 612번 일원의 6지구에는 지표조사 결과 16세기의 귀얄문 분청사기 편이 다량 수습되었고, 9지구의 석실묘 1호·2호에서도 토기유물이 출토되었다.<sup>39)</sup> 장안읍 반룡리 685번리 일원의 유물산포지(5지구·12지구)에는 삼국시대 석실묘와 조선시대 분묘 등을 조사하였는데,<sup>40)</sup> 각종 자기편이 출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1)</sup> 장안읍 반룡리 산131-1번지 일원의 삼국시대 고분인 7호·12호 석곽묘, 석실묘 1호·11호·14호에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에 걸친 상당한 양의 토기와 환두대도가 출토되었다.<sup>42)</sup> 반룡리 715번지의 4구역 수혈 1호와 2호에서 도기편과 인화문분청사기 접시와 분청사기편이 출토되었는데,<sup>43)</sup> 수혈 1호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접시는 거의 완형에 가깝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접시와 도기편은 15~16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sup>44)</sup> 반룡리 595번지 일원의 1구역 수혈 1호(조선시대)귀얄문 분청사기 저부편과 귀얄문 분청사기편과 도기편이 출토되었는데,<sup>45)</sup> 이는 16세기의 편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장지역은 도자기의 요지가 거의 기장지역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기장지역이 토기뿐만 아니라 도자기의 생산도 활발하게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자료는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장안리 자기소·도기소와

39)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기장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6·7·9구역) 유적 발굴(시굴)조사 현장설명회』, 2007, 12쪽, 16쪽.

40) (재)경남문화재연구원, 『기장 장안 일반지방산업단지 내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7, 3쪽, 5쪽.

41) 위의 자료집, 15쪽.

42)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기장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9구역) 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2008, 17쪽, 24쪽.

43)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2·4·8구역) 유적 발굴(시굴)조사 현장설명회』, 2007, 11쪽, 135쪽.

44) 위의 자료집, 16쪽.

45)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1·10·11구역) 유적 발굴(시굴)조사 현장설명회』, 2007, 11쪽.

관련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 도자기 생산의 역사적 의미

#### 1) 분청사기의 생산

앞 절에서 기장지역은 무문청자에서 백자까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지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기 요지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장지역 도자기의 요지, 특히 분청사기의 생산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장지역에서는 “蔚山長興庫·耕負祭”, “蔚山仁壽府·蔚山仁” 등의<sup>46)</sup> 명문을 가진 분청사기가 조사되었는데,<sup>47)</sup> 이는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도자기에 명문을 기입한 것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이루어졌다.<sup>48)</sup> 조선초기의 도자기, 특히 분청사기·백자 등에 여러 가지 내용의 명문이 기록되었다.<sup>49)</sup> 먼저 도자기에 장흥고·인수부 등의 명문을 새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자료 라>

A) 호조에서 器皿 除弊의 事宜를 올려 말하기를, “長興庫의 明文에 의거하면 外貢의 砂器·木器는 司饗房에 납부하여 시행하고, 장흥고는 捧納을 專掌하여, 內宴과 行幸 때에 사용방·司膳署·司饗所에 분납하는 까닭에 끝까지 고찰할 수 없는데다가 혹

46) 기장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앞의 보고서, 127~136쪽.

47) 명문이 표기된 분청사기를 “관사명분청사기”라는 이름으로 불러 왔는데, 근래 이러한 점에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명문분청사기”로 불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성현주, 『경상도지역 “銘文”분청사기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6).

48) 鄭良謨, 「高麗陶器銘文의 性格」, 『高麗陶器銘文』, 국립중앙박물관, 1992, 143~147쪽.

49) 姜敬淑, 앞의 책, 1986; 김영원, 앞의 책, 2003; 박경자, 『粉靑沙器 銘文 연구』, 『강좌미술사』 25, 한국미술사연구소, 2005; 성현주, 앞의 논문.

은 숨기고 혹은 깨어져 還納한 숫자는 겨우 5분의 1에 이르러 이를 逢受한 下典에게 징수함은 실로 여러 해 쌓인 큰 폐단이라 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장흥고에 납부하는 사기·목기의 外貢元數 안에 사옹방·사선서·禮賓寺·典祀寺·內資寺·內贍寺·恭安府·敬承府 등各司의 것도 따로 정하여 上納하게 하고, 각기 그 司에서 출납을 고찰하게 함으로써 積弊를 혁파하게 하소서.”하고, 호조에서 또 아뢰기를, “장흥고의 貢案付 砂木器에 금후로는 ‘長興庫’라 3자를 새기고, 기타各司에 납부하는 것도 또한 장흥고의 例에 의하여 각기 그 司號를 새겨서 제품을 만들어 상납하게 하고, 윗 항의 標가 있는 器皿을 私藏하다가 드러난 자는 官物을 훔친 죄를 받게 함으로써 큰 폐단을 끊게 하소서.”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태종실록』 권33, 17년(1417) 4월 20일 병자).

B) 호조에서 軍資監·內資寺·長興庫 등 각사에서 耗損한 물건의 숫자를 그 당시의 관리에게 徵納하기를 청하니, 윤희하지 아니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出納할 때 착오가 난 문서가 아니겠느냐? 관리가 어찌 감히 스스로 훔치겠느냐?” 영의정 柳廷顯이, “창고를 열 때에, 혹 일이 번잡하거나 혹은 日沒한 뒤에 출납하는 奴들이 훔쳐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해당 관리에게 추정함은 더욱 불가한 것이다. 징납하지 말도록 하라.”(『태종실록』 권33, 17년(1417) 6월 1일 을유)

위의 <자료 라> A)는 호조에서 기명과 관련한 폐단의 하나로, 장흥고에 납입된 것을 다시 행사가 있을 때 물건을 각 사로 분납하면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니, 장흥고의 貢案付 砂木器에 금후로는 ‘長興庫’<sup>50)</sup> 3자를 새기고, 기타各司에 납부하는 것도 또한 장흥고의 例에 의하여 각기 그 司號를 새겨서 제품을 만들어 상납하게 하라는 것이다. <자료 라> B)는 군자감·장흥고 등 각사에서 분실한 물건에 대해 각사의 관리에게 추정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태종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의 두 자료에 의하면

50) 長興庫는 뜻자리·유둔(油釜)·지지 등의 일을 관장하였는데, 그러나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도자기도 공급품의 중요한 물품 중의 하나였다. 관원의 직제는 使 1명 중5품이고, 副使 1명 중6품이고, 直長 2명 중7품이고, 注簿 2명 중8품이다.

조선초기 각 사에서는 자기의 손실이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방안을 각 사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기의 각 사의 명문은 조선초기 궁궐 내 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태종 1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기장지역에서 조사된 “蔚山長興庫·蔚山仁壽府” 등의 명문을 가진 자기는 중앙 관청으로 상납하기 위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2)</sup> 그러한 자기의 일부가 현재 기장군 장안읍 일원에서 조사되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경상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장흥고·인수부 등의 중앙의 관청의 명칭이 지역과 병존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조선초기 경상도 지역의 도자기 생산의 한 특징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기장지역에서 조사되고 있는 ‘울산장흥고’·‘울산인수부’·‘울산인’ 등의 명문은 조선초기 경상도 지역의 도자기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조선초기 자기의 관리는 태종 17년 이후 그 폐단이 점차 해소되고 있었지만, 禮賓判事 金素 등이 말하기를, “本寺에서 朱漆器와 鑪器는 해마다 사들이고, 사기와 목기는 해마다 공납을 받는데, 한 번 연회를 치르고 나면 곧 반수 이상이 없어지므로, 곧 이를 맡아서 간수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물어넣게 하여 왔습니다. 연회가 자꾸 계속 되면, 맡아 간수하는 노비들은 비록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 오고 살림을 파산하여도 다 물어낼 수는 없게 됩니다. 만일 물리지 않는다면, 맡아서 간수하는 자가 조심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물린다면 맡아서 간수하는 자의 피해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53)</sup>

51) 김영원, 「조선조 인화문 분청사기의 양식분류」, 『고고미술』 148, 한국미술사학회, 2005, 5쪽; 박경자, 앞의 논문, 262~272쪽; 성현주, 앞의 논문, 12쪽.

52) 仁壽府는 조선 정종 2년 2월 아우인 靖安公을 왕세자로 세우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한 후 세자부를 설치한 후에 불렀는데, 세자가 그해 11월에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약 10개월간 존속하였던 것이다. 후에 인수부는 세조 원년(1455) 德寧府로 개칭되어 폐위당한 단종을 위한 관청으로 존재하다가 1457년에 다시 원래의 명칭으로 환원되었다가 명종 11년(1556)까지 존속되었다.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곳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자기의 질의 문제가 파생되었다.

다음으로 조선초기 도자기에는 匠人銘을 새겼다. 장인명을 새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자료 마>

공조에서 계하기를, “진상하는 그릇은 대개 마음을 써서 튼튼하게 제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서 파손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릇 밑바닥에 만든 匠人의 이름을 써 넣어서 후일의 참고로 삼고, 마음을 써서 만들지 않은 자에게는 그 그릇을 물어 넣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권11, 3년(1421) 4월 16일 무신)

위의 <자료 마>에 의하면 공조에서는 관청에서 진상하는 그릇이 잘 파괴되고 있으므로 장인의 이름을 새겨 자기의 품질을 높일 것을 건의하고 있다.<sup>54)</sup> 실제 장인명을 기록하고 있는 조선전기 자기들은 광주 효충동·광주 도수리·공주 중흥리·울산 고지평·완주 화심리 등에서 상당수 확인되고 있지만,<sup>55)</sup> 기장지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선초기 각 지역에서는 생산자인 장인명을 기록하여 자기의 생산을 도모하였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기장에서조차 장인명을 기록한 자기를 생산하였을 가능성은 많다고 할 수 있다.

도자기는 태조 원년 공납제가 제정 실시된 이래 조선초기 중요한 공물의 하나로 정착되었고, 실제 앞의 <표 1>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경상도지리지』에 의하면 토산공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전국에 산

53) 『세종실록』 권7, 2년(1421) 1월 19일 무술.

54) 박경자, 앞의 논문, 280~285쪽에서 기명에 표기된 장인명은 실제로는 그릇을 공납하는 지역의 이름인 “지명”으로 새겨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현주, 앞의 논문, 14쪽에서는 박경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55) 박경자, 앞의 논문, 275쪽.

재해 있는 도기소·자기소를 비롯한 여러 가마에서 제작되어 각 지방의 토산물로 중앙에 납품된 도자기들은 공납과 진상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였다. 자기의 공납은 다음의 고려 말의 자료가 주목된다.

<자료 바>

司饗寺에서는 해마다 각 도에 사람을 보내어 대궐에서 쓰일 瓷器의 제조를 감독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오나 公事를 빙자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해서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여 한 도에서 짐을 싣고 오는 것이 소 8·90바리나 됩니다. 지나오는 곳은 떠들썩하지만, 서울에 이르러서 바치는 것은 백 분의 일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사사로이 차지하니, 폐해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관사의 愛馬를 외방에 보내는 것은 일체 이를 금하되, 모든 이와 같은 일은 모두 도당에 아뢰게 하고, 도당에서는 관찰사에게 내려 보내며, 관찰사는 물품이 있는 주·현에 배정하여 문서에 따라서 직접 바치게 한다면 백성에게 편리할 것입니다.(『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1년 12월 임인)

위의 <자료 바>는 고려 말 왕실에서 필요한 도자기가 사용시의 감독 하에 각 지역의 요지에서 생산되어 각 군현의 공물로 상납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공납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태종 17년(1417) 자료의 ‘外貢砂器’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초기 자기는 각 군현에서 생산되어 중앙으로 공납되었다. 이때의 공납자기는 도·자기소 뿐만 아니라 도·자기소로 파악되지 않은 곳에서도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장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 단계에서 자기소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신리·대룡요지에서 이미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었고, 그러한 도자기를 중앙으로 상납하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흥군 운대리 요지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자기소·도기소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도자기를 생산하여 상납하고 있었다.<sup>56)</sup> 따라서 기장지역은 자기소로 기록되기 이전에 고흥군 운대리

56) 김영원, 앞의 논문, 2005, 58~61쪽.

요지처럼 도자기를 생산하여 상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장지역의 도자기는 1469년 정월에서 3월까지의 상황을 기록한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장안리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은 분원의 설치로 일정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sup>57)</sup> 다음의 자료는 분원 설치 이후 도자기가 공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자료 아>

工曹判書 梁誠之가 상서하였는데, 그 상서는 이러하였다. ... . 貢賦를 정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貢物의 詳定은 예로부터 어렵게 여겨왔습니다. 산과 바다에서 산출되는 바가 각기 달라서 균일하게 나누어 정할 수 없으나, 범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水陸으로 인하여 상정해야 할 것이니, 下三道 같은 데에서는 綿布를 바치고, 평안도·황해도는 綿紬를 바치고, 함길도·강원도는 常布를 바치며, 또 兩界는 貂皮·鼠皮를 바치고, 강원도는 材木을 바치고, 황해도는 鐵物을 바치고, 전주·남원은 厚紙를 바치고, 林川·韓山은 生苧를 바치고, 안동 등지는 芻草를 바치고, 강계 등지는 人蔘을 바치고, 제주는 良馬를 바쳐서 곳곳에 있는 물건이 이르고 또 곳곳에 나누어 정하도록 하소서. 그렇게 하여 山郡에서는 皮物을 바치고, 海郡에서는 어물을 바쳐 그 많고 적은 것을 균등하게 하고, 그 자질구레한 것을 제한한다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예종실록』 권6, 1년(1469) 6월 29일 신사)

위의 <자료 아>는 양성지가 공물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각 지역의 공물을 고르게 정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도자기가 공물의 품목에 포

57) 분원의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권병탁·정양모·강경숙은 성종 연간을 들고 있고, 김영원은 세조 13년에서 『경국대전』 공전의 편찬연대인 세조 15년(1469) 사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박사학위논문에서 세조 13년(1467) 4월을 상한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2001년 6월 「광주 분원과 조선 도자」라는 학술대회에서 분원의 설치는 1467년 4월이라는 시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함되지 않고 있다. 즉 도자기는 공물 분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분원의 설치와 무관하지 않다. 왕실과 중앙 관청용 공물의 하나였던 도자기를, 지방 요(자기소와 기타 요)에서 공납하였으나 이제 분원 설치로 도자기는 안정적인 조달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분원의 임무가 진상자기의 제작이었고, 공급처인 궁궐과 중앙관청을 대상으로 하였던 점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 분원 설치 이후 각 지역 자기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분원에 위임하였고, 그 역할과 성격을 변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경상도속찬지리지』에 기록된 장안리의 자기소에서 생산되었던 자기, 즉 분청사기는 공납용, 즉 상납용 자기로서의 역할을 하였지만, 분원 설치 이후에는 그러한 역할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산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분청사기요지에서 일부 백자를 생산하였다. 백자는 일반 반상기류라기보다는 특수기종을 중심으로 생산하였다. 그것은 마상배·뚜껑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sup>58)</sup>

한편 기장지역은 공납용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자기도 생산하였던 것으로 유추된다. 제사에 사용되는 자기를 ‘도자제기’로 부르기도 한다.<sup>59)</sup> 조선은 의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러한 의례를 위해 그릇, 즉 용기가 필요하였다. 용기는 금속제기에서 점차 도자제기로 대체되었다. 도자제기는 제기도설에 부합되는 기종·기형과 일상용기를 활용한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발·접시·병 등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祭’와 같은 명문이 있거나 그릇에 높고 각진 굽을 부착하여 제기임을 표시하였다.<sup>60)</sup>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장지역에서는 ‘耕負祭’명의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 ‘耕負祭’명은 관청·지역·인명도 아니고,<sup>61)</sup> 이제까지 이러한 명문을 가진 예는

58) 機張郡·慶南文化財研究院, 앞의 보고서, 64~65쪽, 102쪽.

59) 安星稀, 『朝鮮時代 陶器祭器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쪽.

60) 위의 논문, 23~69쪽.

61) 명문을 가진 분청사기의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박경자, 앞의 논문, 2005, 262~272쪽; 성현주, 앞의 논문, 37~68쪽.

조사되지 않고 있다. ‘祭’는 제사에 대한 의미일 것이고, ‘耕負’는 제사의 대상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 ‘耕負祭’의 명 자기는 제사의 필요성에서 생산되었다. ‘耕負祭’명의 자기는 상납용이었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지내는 제사, 즉 中祀·小祀 등을 위해 생산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sup>62)</sup> ‘耕負祭’명의 사기, 즉 祭器가 기장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장지역의 분청사기는 상납용, 즉 공납용으로만 제작된 것은 아니었다. 분청사기의 일부는 지역에 매매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최근 정관지역의 발굴과 장안 산업단지 조성지역의 부분적인 시굴을 통해 조선시대의 민묘 혹은 수혈지 등에서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sup>63)</sup>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어떤 곳에서는 기장지역의 분청사기와 유사한 거의 완형에 가까운 자기가 출토되었다. 이는 기장지역에서 생산된 자기가 지역의 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검토한 것처럼 기장지역은 15세기 중·후반, 즉 『경상도 속찬지리지』에 기록된 장안리의 자기소로, 즉 ‘蔚山長興庫’·‘蔚山仁壽府’·‘蔚山仁’·‘耕負祭’ 등의 분청사기를 생산하였고, 이를 중앙으로 상납함으로써 도자기 생산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 2) 백자의 생산과 도공

백자는 고려시기에 생산되었지만,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옹원 분원의 설치 이후였다. 분원의 설치는 왕실이 국내외 사용할 최고급 백자가 대량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sup>64)</sup> 분원은 경기도

62) 機張郡·慶南文化財研究院, 앞의 보고서, 118쪽; 성현주, 앞의 보고서, 114쪽.

63) 강경숙, 『조선시대 도자』, 앞의 책, 2001, 265~268쪽에서 분청사기의 요는 일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이해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64) 김영원, 앞의 책, 2003, 101쪽.

광주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왕실용 자기의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품 자기를 생산하였던 상주의 경상도의 자기소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원 설치 이후 각 지역의 자기 생산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sup>65)</sup>

각 지역의 가마에서는 그 나름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 분원의 관요에서 백자 중심의 제작 양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각 지역의 요지에서도 점차 분청사기 대신 주로 백자를 주로 생산하였다.<sup>66)</sup>

앞에서 기장지역에는 백자를 생산하였던 요지가 두명리·병산리·용소리 등에 존재하였는데, 그러한 백자생산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장지역의 백자는 『경상도속찬지리지』 자기소·도기소와 『왜인구청등록』 기장사기장의 기록 외에 생산을 유추할 수 있는 문헌자료가 없다. 기장지역의 백자는 주로 16·17세기 이후에 생산된 것으로, 분원 설치 이후의 자기 생산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백자의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양질의 백토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백토는 자기의 품질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분원 설치 이후 전국의 유명한 백토는 분원에 거의 독점되었다. 따라서 기장지역의 백자는 자연히 분원의 백자보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기장지역에서 생산되는 자기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었다. 결국 기장지역의 자기는 공납의 의무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점차 왕실과 중앙 관청으로부터 수요가 사라짐으로써, 주문백자, 왜관과 기장지역의 상류층, 그리고 인근지역의 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장지역의 자기 생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광주시 무등산 충효동 요지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sup>67)</sup>

기장지역은 16·17세기 이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백자를 중

65) 尹龍二, 「분청자의 소멸과 백자의 발달」, 앞의 책, 360~369쪽.

66) 김영원, 앞의 책, 2003, 170쪽.

67) 위의 책, 173쪽.

심으로 다양한 도자기를 생산하였다. 이는 임진왜란 시기에 불법적으로 도공들이 끌려가는 요인이 되었겠지만,<sup>68)</sup> 17세기 후반 초량왜관에 기장지역 도공의 기술이 알려지는 요인이 되었다. 왜관에서는 기장지역의 도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다음의 자료가 매우 주목된다.

<자료 자>

A)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예도에서 사용할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해 동래와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왔거니와, 이번에는 새 關白이 청하는 사기로 그 수량이 허다하고 들어갈 白土와 藥土 및 松土木 등을 전보다 넉넉하게 분정하여 들여 주며, 조선 沙器匠은 솜씨 좋은 자로 이전대로 정하여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서계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다(『왜인구청등록』 신유(1681) 3월 초2일).

B) 燔造 두왜 및 관수왜의 말이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 올 때 예도의 여러 집정과 봉행 등이 구하는 茶碗과 器皿 등의 물건이 이전보다 배로 많기로, 부득이 기일에 앞서 내어 보내거니와, 이번에는 전과 같이 하지 말고 비록 수량에 차지 않더라도 반드시 정한 흙을 들여 주며, 松土木도 전례대로 30집[法]을 때맞추어 들여 주고, 임시 가옥을 수리할 재목 및 울타리도 아울러 속히 들여 주며, 양산의 沙器匠 1명과 기장의 사기장 1명을 우선 수일 내로 倭館으로 들여보내어 상의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의 白土 45섬, 진주의 백토 45섬, 곤양의 백토 45섬, 하동의 백토 45섬, 김해의 赤紺土 90섬, 울산의 藥土 90섬도 전례대로 마련 분정하여, 지연되어 급박한 폐단이 없게 해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하였다(『왜인구청등록』 정묘(1687) 7월 초2일).

위의 <자료 자> A)에 의하면 왜인들은 조선 沙器匠이 좋은 기술을 가졌다고 하여 이들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자료 자>

68) 변광석, 「임진왜란 전후 慶尙道 機張縣의 상황과 被虜人 도공」, 『機張 陶磁史 研究』, 기장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의 논문이 참고된다.

B)는 자료 A)와 유사한 내용으로 양산의 沙器匠 1명과 기장의 사기장 1명을 우선 수일 내로 倭館으로 들여보내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에서 조선 사기장의 기술이 좋다고 인식하고, 이들 중에 특별히 기장지역의 사기장을 보내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은 17세기 후반 기장지역은 양산과 함께 도자기 생산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기장은 기장지역의 백자요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편년을 고려할 때 두명리·병산리 요지에 자기를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기장지역의 사기장은 초량왜관에 도움을 줄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기 조달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장지역은 조선 중·후기에도 몇몇 요지에서 백자를 생산하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왜관에서 사기장의 파견 요청을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 3) 도자기의 교역

조선 도자기는 현재까지 일본 大阪과 九州 등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조선 도자기는 각종 도록이나 발굴조사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sup>69)</sup> 이는 조선 도자기가 일본에서 여러 계층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sup>70)</sup> 조선 도자기는 일본에서 ‘高麗茶碗’이라 불리었으므로 조선 도자기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이는 조선 도자기가 일본에 수입, 즉 교역되는 배경이 되었다.<sup>71)</sup>

조선 도자기는 주로 일본 구주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구주지역의 지배층들이 조선 도자기를 수입하였던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에서 출토되는 조선 도자기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제작된 분청사기가 중심이었다. 이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제작된

69) 林屋晴三, 「高麗茶碗」, 『世界陶磁全集』 19, 東京 小學館, 1980; 森毅, 「大阪出土의 李朝陶磁」, 『大阪市文化財協會研究紀要』 4, 大阪市文化財協會, 2001.

70) 김영원, 앞의 논문, 2003, 63~65쪽.

71) 위의 논문, 63~65쪽.

조선 도자기가 수출되었다는 증거이다.

조선초기 태종·세종대에는 경상도 제포·부산포·염포 등의 3포에 왜관을 설치하였다. 왜관에는 恒居倭人和 함께 興利倭人也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다양한 품목으로 무역활동을 하였다. 울산 지역에 위치한 염포왜관의 왜인도 마찬가지였다. 염포왜관은 제포와 부산포보다 늦은 세종 8년(1426)에 개항되었지만, 중종 5년(1510) 왜관이 폐쇄될 때까지 존재하였다.<sup>72)</sup>

이 시기 기장지역은 상장안과 하장안을 중심으로 분청사기를 비롯한 도자기를 활발하게 생산하였다. 기장지역의 도자기가 조선초기 염포왜관에서 뿐만 아니라 부산포왜관에서 교역되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장안리는 조선초기 울산군의 영역이었고, 장안리의 인근인 울산군 염포에는 염포왜관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전기 왜관에서 도자기 교류는 웅천현의 제포왜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웅천현의 제포왜관은 인근지역에 두동리 웅천요지가 있다. 웅천요지에서는 분청사기, 조질 회청사기, 백자, 흑유 등이 출토되었다.<sup>73)</sup> 분청사기는 귀얄분청과 조질 회청사기로서 대부분 도기 질이며 쇠퇴기 양상을 보인다. 음각문이나 인화문 위에 백토를 귀얄이나 분장기법으로 입혔다. 백토귀얄문과 분장문은 매우 투박하고 백토가 얼은 것도 있다. 또 유약이 멍치기도 하고 균열이 심한 것도 있다. 이렇게 거칠고 투박한 양식이 일본에서 茶盥으로 유명한 井戸茶盥과 유사한데, 두동리 요지가 그 제작지로 거론되고 있다.<sup>74)</sup> 웅천의 두동리의 요지는 제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두동리 요지에서 생산된 자기가 교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75)</sup>

72) 김동철, 『조선전기 대일정책과 울산』, 『울산광역시사』,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이정수, 『염포의 왜인과 경제활동』,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73)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진해 웅천 자기요지(1)』, 2001;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진해 웅천 도요지(2)』, 2004; 성현주, 앞의 논문.

74) 김영원, 앞의 책, 390~391쪽.

기장지역의 장안리의 요지는 염포왜관이 존재하였던 시점에 활발하게 자기를 생산하였다. 염포에는 다수의 왜인이 거주하였고,<sup>76)</sup> 이들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였지만 점차 다양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는데, 특히 무역을 통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 혈안이었다. 따라서 기장지역은 품질이 우수한 15세기 공납용 분청사기를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기가 왜인에 매매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는 임진왜란 때 기장지역의 도공이 일본으로 끌려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기장지역의 도자기는 염포왜관이 폐쇄된 16·17세기 이후 부산포·초량왜관을 통해서도 일본에 교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산포·초량왜관은 염포왜관이 폐쇄된 이후 16세기에 단일 왜관으로 존재하였고, 이곳의 왜인들은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왜관에서 기장 사기장을 파견 요청하였는데, 이는 기장 도자기가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기장에서 생산되는 자기가 교역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장지역 도자기는 한일 도자교류의 양상이 변화되는 18세기 중반까지 일본에 교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기장지역 도자기의 생산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서 맺음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기장지역은 최근 활발한 시굴을 통해 삼국시대 토기를 생산하였던 곳임이 밝혀졌다. 이를 기반으로 고려·조선시대에는 더욱 활발하게 도자기를 생산하였던 곳이다. 그것은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요

75) 성현주, 앞의 논문, 173~176쪽.

76) 염포에 거주한 왜인의 수는 세조 12년(1466) 120여명, 성종 6년(1475) 128명, 성종 7년(1476) 131명, 성종 25년(1494) 152명이 거주하고 있다.(김동철, 앞의 논문, 2002; 이정수, 앞의 논문, 2008)

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장지역이 도자기를 활발하게 생산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목, 시토 등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경상도 속찬지리지』 ‘장안리 자기소·도기소’의 기록을 통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기장지역은 ‘蔚山長興庫’·‘蔚山仁壽府’·‘蔚山仁’·‘耕負祭’ 명의 명문을 통해 도자기 생산의 의미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도자기 생산지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의미 있다. 기장지역은 상납용 분청사기를 생산하였고, 상납용 분청사기를 생산할 무렵 상납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기를 지역의 민간에 유통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기장지역의 조선시대 분묘 및 수혈지에서 분청사기가 출토되고 있는 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분원 설치 이후 기장지역은 일정기간 분청사기를 생산하였지만, 점차 백자를 중심으로 생산하였다.

기장지역의 도자기는 조선전기 왜관을 통해 일본에 교역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진해 두동리 유적의 명문 분청사기가 인근의 제포왜관에서 교역되었다는 점에서, 기장지역의 도자기는 비슷한 시기 분청사기를 생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염포·부산포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교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기장지역 도자기는 조선후기 기장 자기장의 파견 요청을 고려할 때 17세기에 초량왜관을 통해 교역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왜관의 도자기 생산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장지역은 여러 곳에 분청사기·백자·도기 등의 요지가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는 사례가 특이하다. 이러한 요지는 최근까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파괴도 덜 되었다. 하지만 근래 요지가 지역민에게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이를 훼손하는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장지역 도자기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요지의 발굴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慶尙道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誌』

『東國輿地勝覽』

『倭人求請謄錄』

(재)경남문화재연구원, 『기장 장안 일반지방산업단지 내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7.

(재)동아세아문화연구원, 『기장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6·7·9구역) 유적 발굴(시굴)조사 현장설명회』, 2007.

\_\_\_\_\_,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1·10·11구역) 유적 발굴(시굴)조사 현장설명회』, 2007.

\_\_\_\_\_,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2·4·8구역) 유적 발굴(시굴)조사 현장설명회』, 2007.

### 2. 논저

姜敬淑, 『粉靑沙器의 各市·道 窯址別 特色』, 『粉靑沙器研究』, 一志社, 1986.

\_\_\_\_\_, 『한국도요기 가마터 연구』, SIGONGART, 2006.

\_\_\_\_\_, 『韓國陶磁史』, 일지사, 2001.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진해 웅천 도요지(2)』, 2004.

계명대학교, 『발굴 유물 특별전-김산군의 관와 객사 유적-』, 1998.

機張郡·慶南文化財研究院, 『機張郡 陶藝村 造成을 위한 長安邑 一圓 陶窯址 精密地表調査』, 2007.

기장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機張 陶磁史 研究』, 2008.

김영원, 『陶器所·磁器所 問題와 分院時期의 對日貿易-高興 雲岱里

- 窯址를 中心으로-, 『미술사논단』 2, 한국미술연구소, 2005.
- \_\_\_\_\_,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 출판부, 2003.
- 김윤희, 「사천 사촌리 요지 출토 백자 연구」, 『경문논총』 창간호, 경남문화재연구소, 2007.
- \_\_\_\_\_, 『경남지방 조선전기 백자 연구-하동 백련리 출토 백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경자, 「粉靑沙器 銘文 연구」, 『강좌미술사』 25, 한국미술사연구소, 2005.
-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연구』, 일지사, 2000.
- 부산광역시 기장군·북천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기장군-』, 2005.
- 성현주, 『경상도지역 “銘文”분청사기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安星稀, 『朝鮮時代 陶瓷祭器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威德大學校 博物館·蔚山大學校 博物館, 『蔚山 「彦陽 磁器所」 地表 調査 報告』, 2000.
- 尹龍二, 『韓國陶瓷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 이종봉, 「기장의 역사」, 『기장군지(상)』, 기장군지편찬위원회, 2002.
- 長安邑誌編纂委員會, 『長安邑誌』, 2008.
- 鄭良謨, 「高麗陶瓷銘文의 性格」, 『高麗陶瓷銘文』, 국립중앙박물관, 1992.
- 鄭容淑, 「신라·고려시대의 지방제도의 정비와 機張」, 『한국민족문화』 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6.
- 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부산·울산간 고속도로(제5공구)-』, 2005.
- 진해시·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진해 응천 자기요지(1)』, 2001.
- 허선영, 『14~15세기 부산 기장지역 도자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황 구, 「기장의 분청사기와 매장문화재의 활용」, 『기장문화』 제5호, 기장지역문화원, 2007.

\_\_\_\_\_, 『기장의 분청사기와 매장문화재의 활용』, 『기장의 매장문화재 조사사례 발표회』, 기장지역문화원, 2006

<Abstract>

### The Production of Ceramics in Gijang and Its Significance in the Chosun Dynasty

Lee, Jong-Bong

This paper examined the production of pottery at Gijang and its significance. I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test prospecting works have discovered that Gijang had made earthenware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and had mass-produced pottery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Joseon Dynasty periods. We also can understand the fact through many sites of kiln. The mass-production of pottery at Gijang was related to a firewood and a soil. We can find the fact in “a porcelain works and a pottery works at Janganri” of a *Serial Geography of Gyeongsangdo*(『경상도속찬지리지』).

Second, the excavated express words such as ‘Wolsanjanheunggo’(蔚山長興庫), ‘Wolsaninsubu’(蔚山仁壽府), ‘Wolsanin’(蔚山仁), ‘Gyeongbuje’(耕負祭) make the significance of the production of pottery at Gijang clearer. The discovery of Gijang has a historical significance because Gijang have not been referred to as an pottery-producing place. Gijang had produced porcelain for sale to local people as well as a grayish-blue-powdered celadon(粉靑沙器) for tribute. It is proved by the fact that grayish-blue-powdered celadon was excavated at tombs and digged holes of Gijang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Gijang had produced more a white porcelain than a grayish-blue-powdered celadon after setting up of a official pottery(分院).

Third, it seems that the pottery of Gijang was exported to Japan through Japanese office. As a grayish-blue-powdered celadon which discovered at the remains of Dudongri in Jinhae was traded through neighboring Japanese office at Japo, it is possible that a grayish-blue-powdered celadon which produced at Gijang was traded through Japanese offices at Yeompo and at Busanpo. It also seems that the pottery of Gijang was traded through Japanese office at Choryang in that the

Japanese office demanded the despatch of a pottery official of Gijang(機張沙器匠) in the seventeenth-century. Therefore, the pottery of Gijang would have an effect on the production of pottery at Japanese office.

\* Key Words: Janganri, Wolsanjangheunggo, Express Word, Porcelain Works and Pottery Works, Pottery Official of Gijang.

· 논문투고일: 2009년 2월 5일 · 심사완료일: 2009년 3월 4일 · 게재결정일: 2009년 3월 17일